

페스티벌 관객석 가르는 울타리... 안전 관리에 팬들 반발 논란

광주 광산구가 주관하는 페스티벌 스탠딩존(입석) 관객석 내 울타리 설치를 두고 팬들이 '뮤지페스티벌 관람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하면서 논란이다.

광산구는 2000여 명에 가까운 인파가 몰릴 것을 우려해 부득이한 결정을 내렸다고 팬들을 향해 거듭 이해를 부탁하고 나섰다.

18일 광산구에 따르면 20일부터 이틀 동안 광산구 황룡강친수공원에서 제3회 광산뮤직ON페스티벌이 열린다.

행사는 '가을 온(ON) 순간'을 주제로 코스모스라온지, 별빛영화관, 뮤직오락실, 사진공간(포토존), 북크니 등 지역민이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볼거리 등이 마련됐다.

특히 행사의 대미를 장식하는 뮤지페스티벌에는 글렌체크, 유다빈밴드, 크라이넛 등 국내 정상급 록밴드들이 무대 위로 오르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산ON뮤지페스티벌, 정상급 뮤지션에 팬들 기대감 스탠딩석 2000석 한복판 울타리에 "관람 문화 몰이해" 광산구 "다중인파 몰려 안전 관리 최우선... 양해 부탁"

행사 준비에 나선 광산구는 양일간 뮤지페스티벌 운영 과정에서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스탠딩존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스탠딩존을 각 A·B·C 등 세 구역으로 나눠 관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부 팬들이 반발하고 있다. 광산구는 무대와 가까운 A·B석을 각 600석, C석을 800석으로 나눈 뒤 각 객석 간 이동이 제한되도록 중간에 울타리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에 페스티벌을 즐기는 일부 팬들은 자유로운 관람 문화가 침해받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페스티벌 문화 중 '슬램'을 즐기기 위해서는 스탠딩존을 나

뉘는 안된다는 것이다.

'슬램'은 규모있는 콘서트 또는 페스티벌에서 볼 수 있는 문화로, 관객들이 공연 도중 스탠딩존 빈 공간 또는 특정 구역에 깃발을 올린 뒤 동시에 해당 구역으로 뛰어 들어 몸을 부딪히는 행동이다. 다수 인원이 무작위로 신체를 부딪히는 행동이기

에 부상 위험이 있다. 한 팬은 "팬들 중 누군가는 뮤지션과 가까이 소통하다가 슬램을 즐기러 이동하고 싶을 수 있다. 울타리 설치는 이러한 관람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팬도 "일부 팬과 뮤지션들은 기

성 록페스티벌에서 즐겨온 문화를 광산뮤직ON페스티벌에서도 즐기고 싶은 것이다. 이번 페스티벌에 섭외된 한 뮤지션은 공연 도중 관객들과 함께 대열을 짜 음악에 맞춰 체조를 하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울타리가 있다면 뮤지션과 팬들이 나뉘는 방식으로 소통해오던 분위기가 다소 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광산구는 팬들의 우려에도 모두의 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광산구 관계자는 "스탠딩석 2000여 석에 못자리석까지 포함한다면 더욱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중인파가 모이는 특성상 안전관리가 최우선일 수밖에 없다"며 "용역업체는 소방과 경찰을 통해 안전관리 심의도 모두 통과받았다. 페스티벌 개최를 수일 앞둔 상황에서 울타리 설치 철회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며 양해를 부탁했다.

김준행 기자



광주 34개 기관, 복합재난 긴급구조 종합훈련 빛고을전남대병원서 헬기추락·건물붕괴·화재 등 대응훈련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18일 오후 남구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에서 대규모 복합재난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헬기 추락, 병원 건물 화재와 붕괴, 산불 확산, 고압가스 탱크 폭발, 전기자동차 화재까지 이어지는 연쇄적 재난상황을 가정해 재난 현장에서 각 기관의 대응능력 검증 및 대응태세 강화를 위한 합동훈련이다.

참여 기관은 소방, 경찰, 군, 지자체, 의료기관 등 34개 기관·단체 530여명과 소방헬기 및 합지펌프차 등 86대의 장비가 동원됐다.

현장에서는 화재 진압과 붕괴현장 인명구조·구급 대응은 물론 건물 안전진단, 폭발사고 대응, 전기자동차 화재, 산불 진압 지휘체계 운영 등 다양한 재난 상황이 종합적으로 전개됐다.

또 약 50명의 다수사상자 발생 상황을 가정해 현장응급의료소를 운영

하고, 부상자 분류·응급처치·이송까지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현장 응급의료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등 실제 재난에 대비한 종합적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이 훈련을 통해 대규모 복합재난 발생 시 대응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점검하고, 재난 현장에서 기관 간 무선통신체계 확립으로 원활한 협조와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외군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이번 훈련은 실제 재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복합상황을 재현해 각 기관의 대응 절차와 협업 체계를 면밀히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재난은 예측할 수 없는 만큼, 광주소방은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속에 더욱 완벽한 대응태세를 갖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승원 기자

광주약사회 '창고형 약국 개설, 제도 마련 전까지 보류해야'

광주약사회가 광주 도심에 개설 추진 중인 이른바 '창고형 약국'에 대해 규탄하며 행정 절차 보류를 촉구했다.

광주약사회는 18일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약은 싸다고 구입하는 단순한 공산품이 아닌 생리활성물질이다. 약사의 철저한 관리와 복약지도도를 통해서만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광산구 수완지구에 개설 신청한 창고형약국은 현행 약사법 안에 규제가 없다. 시대 흐름에 따른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제한 진열방식과 카트를 통한 대량 구매 유도 방식으로 약물 오남

용을 조장하고 복약 지도를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700여 개 지역약국 생태계를 붕괴시킬 위험도 있다. 약사회는 100평 이상 대규모 약국 조례안을 이미 제안했다. 창고형 약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관련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광산구청장은 개설을 보류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는 760여㎡ 규모의 창고형 약국 개설이 추진되고 있다. 광산구보건소에 개설 신고서가 접수됐고 이르면 이달 말 개점을 목표로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오권철 기자



광주약사회가 18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을 향해 창고형약국위해성 대책안인들여질때까지지역내 창고약국개설을 보류해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광주약사회제공

광주시민 61%, 사회서비스 제도 몰라 이용 못해

광주시민 열 명 중 여섯 명 이상은 '어린·장애인·노인돌봄' 등의 사회서비스를 인식하지 못해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광주사회서비스원은 20세 이상 광주시민 1009명을 대상으로 '광주 사회서비스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61.3%가 돌봄 등 복지정책에 대해 이용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유경험자는 38.7%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이용을 하지 않은 이유는 '제도·사업을 몰라서'가 35.4%로 나타났다.

광주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한 필요사항은 '품질 향상'(31.5%)이 가장 많았으며 '사회서비스 보장수준의 확대'(16.0%), '다양한 서비스 제공기관의 확충'(15.0%),

'사회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14.3%) 순이었다.

사회서비스 품질은 '제공자의 전문성'(90.2%)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사회서비스 중점적으로 제공해야 할 영역은 '노인·장애인 돌봄'(25.0%), '영유아 돌봄'(15.9%), '출산지원서비스'(14.8%) 순이다.

또 새롭게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회서비스로는 '가족돌봄청년'(23.2%), '사회적 고립자'(13.5%), '보호종료아동'(11.2%)을 꼽았다.

인공지능(AI)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71.7%가 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적정 비용은 1~2만원(37.9%)이 가장 많았다. /전민규 기자

'투자금 노린다' 광주·전남 5년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169건

광주·전남 지역에서 최근 5년간 고수익을 담보하겠다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가 169건 발생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년~2024년)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련법 위반 검거 건수는 광주 130건, 전남 39건이다.

광주지역은 연도별로 2020년 25건, 2021년 8건, 2022년 27건, 2023년 30건, 2024년 40건이다. 원금 보장·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사건이 매년 30건 안팎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전남지역에서도 매년 10건 안팎으로 관련법을 위반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주가 상승 등 허위 정보를 퍼뜨려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5년간 자본시장법 위반 검거건수는 광주 7건, 전남 8건이다.

한 의원은 "선량한 투자자의 재산을 침해하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현근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광주서 벌집제거·뱀포획 늘어... 추석명절 벌초·성묘 주의

광주지역에서 여름철 벌집·뱀 등 야생동물 포획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초·성묘 등을 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18일 광주시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소방의 생활안전 활동은 8333건이며 이 중 1890건(22.7%)이 벌집 제거, 61건이 뱀 포획으로 분석됐다.

9월에도 광주지역 평균기온이 30도를 기록하면서 벌과 뱀 포획이 줄지 않고 있어 추석을 앞두고 벌초 등을 할 때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1일 오전 7시22분께 북구 망월동 한 야산에서 70대 여성 A씨가 벌에 쏘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지난 16일에는 전남 고흥군 한 마을밭에서 80대 여성 B씨 등 14명이 밭에서 일

을 한 뒤 시신을 하던 중 벌에 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광주소방은 벌초 등을 할 때는 진한 화장품이나 향수는 벌을 유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고 흰색 계열의 옷과 쟁이 넓은 모자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뱀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풀숲에서 맨발이나 샌들을 피하고 개구리 등 양서류가 서식하는 연못 인근을 걸을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김희철 광주소방안전본부 119대응과장은 "벌 쏘임이나 뱀 물림은 자칫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신속히 119에 신고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추석을 맞아 성묘와 벌초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만큼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Advertisement for Tongil Hwamul. Text: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Services: •취급차량: 1t~12t •중양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정보지·신문 광고대행 •광고전단지 운송·배포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기업물류 운송 전문. Contact: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TEL (062) 956-8500~2 Fax (062) 956-2001